

친환경 이동수단의 미래를 한눈에... 이브이(EV) 트렌드 코리아 2026 개막

- 기후에너지환경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
-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혁신과 탄소중립 기술 교류의 장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기차를 비롯해 친환경 이륜차와 건설기계 등 다양한 친환경 이동수단 및 충전시설, 배터리, 그리고 전장 부품 등을 직접 확인해 보고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행사 기간에는 친환경 이동수단 전시 외에도 전문가 학술회(컨퍼런스)와 세계 시장의 친환경 이동수단 투자전략 지원을 위한 해외구매처(바이어) 수출투자 상담회 등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친환경 이동수단에 관한 최신 기술과 정책 방향을 접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친환경 이동수단 관련 세계 시장 투자전략에 대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신청자에 한해서는 최신 전기차 시승 기회도 주어진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8월 25일 오전 개막식 행사에 참석해, 참여 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 2026’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아울러,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제작 및 충전 시설 구축에 기여한 업체를 비롯해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전환에 적극 참여한 케이-이브이(K-EV) 100 우수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 [EV 어워즈 2026] (전기차 부문) 기아 (EV5) / (충전사 부문) 채비, 이엘일렉트릭
[EV100] (승용 부문) BNK캐피탈㈜ / (상용 부문) 소신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전기·수소차 전환은 배터리와 전력망, 인공지능과 첨단 부품산업, 그리고 재생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미래 산업 생태계의 결정체"라며, "대한민국이 친환경 이동수단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 시민행동 운동(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해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030년까지 1천만 기후시민, 지역,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기후행동 생태계를 구축해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캠페인

붙임 행사 계획(안).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책임자	과 장	박판규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박재근 (044-201-6881)



□ 추진 배경

- 전기차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산업생태계 강화 등을 위해 매년 전기·수소차 전시 및 소비자·기업·전문가 간 교류의 장 마련 추진

※ 올해 8회째 행사, '18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

□ 행사 개요

- (행사명) EV 트렌드 코리아 2026
- (주최/주관) 기후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코엑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 (일시/장소) '25. 8. 25(화) ~ 8. 27(목) / 코엑스 A홀(서울 강남구)
- (참여업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식 건설기계 제작사, 충전기 제작사, 부품 및 전장부품사 등 포함 약 90개사

□ 전체 행사 일정(8.25~8.27)

- 개막식, 전시회, 컨퍼런스, 수출·투자 상담회 등으로 구성

구 분	8.25(화)	8.26(수)	8.27(목)
① 개막식	09:20~09:50		
② 전시행사	10:00~16:00	10:00~16:00	10:00~16:00
③ 컨퍼런스	14:00~17:30	10:00~16:00	10:00~16:30
④ 해외바이어 수출·투자 상담회	10:00~16:00	10:00~16:00	
⑤ EV 네트워킹 나잇	17:00~19:30		
⑥ EV 시승체험	10:00~16:00	10:00~16:00	

※ 행사 시간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